



여러분의 꿈과 함께 뛰는 대학
한남대학교
Hannam University

길

가깝고도 때론 먼 길을 씹어 달린다.

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다.

성공의 기쁨도, 실패의 고난도 함께 할 그대가 있기에,

도전을 향해 함께 뛰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볍고 상쾌하다.

2012 CALENDAR



인돈학술원(선교사촌) 길

희망

시린 바람 몰아쳐도 두려워말자.
네 가슴속 뜨거운 꿈 바람막이 되어줄 테니...

2011 12 매듭달

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

도전

때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길에 도전하는 것.
나만의 길을 개척해나간다는 건 분명 멋진 일.

진리의 길(중앙로)

2012 01 해오름달

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



출발

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.
조급해하지 말자, 한 계단씩 천천히 희망을 향해 출발하는 거야.

탈메이지홀 오솔길

설레임

첫 만남, 첫 인사, 첫 사랑
처음이기에 마주하는 두근두근 행복한 설레임.



학생회관 뒤편 오솔길



경상대학 벚꽃 길

청춘

잊지 말자! 벚꽃의 흐드러짐조차
그대의 찬란한 벚꽃을 따라올 수 없음을...



친구

‘빨리 가려면 혼자가고,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.’
먼 길을 함께 할 그대가 있기에 나는 외롭지 않다.

종합운동장 트랙(IFA 인증 산디구장)

2012 05 푸른달

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

추억

가끔은 되돌아보는 것도 괜찮겠지.
오늘의 나를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추억의 한 조각이니까.

린트기념관(대학본부) 가는 오솔길



망설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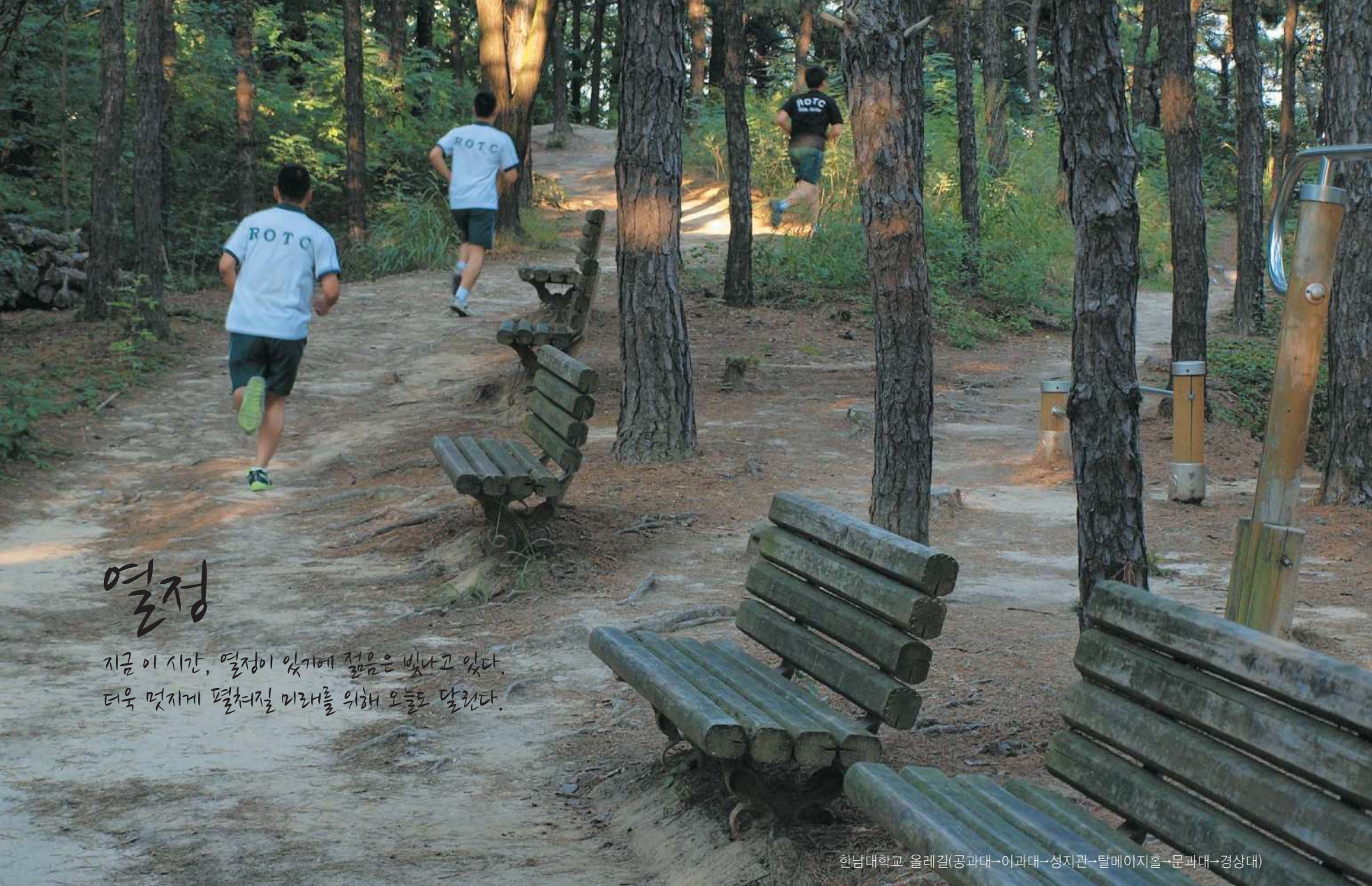
선택이 두렵다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아본다.
그리고 기도한다. 그 어떤 길이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...

법과대학과 문과대학 갈림길

공정

가야 할 길이 멀고 아득해보여도 이것만 기억하자.
지금 힘든 이 순간을 그저 즐기면 된다는 거야.

진리의 길(중앙로)



열정

지금 이 시간, 열정이 있기에 젊음은 빛나고 있다.
더욱 멋지게 펼쳐질 미래를 위해 오늘도 달린다.

한남대학교 올레길(공과대-이과대-성지관-탈메이지홀-문과대-경상대)

쏟는다

힘차게 달려온 지금, 가장 빛나는 색으로 물든 우리들
하늘은 파랗게, 나뭇잎은 노랗게, 내 마음은 희망으로 물들고 있다.

자유의 길(탈메이지홀 앞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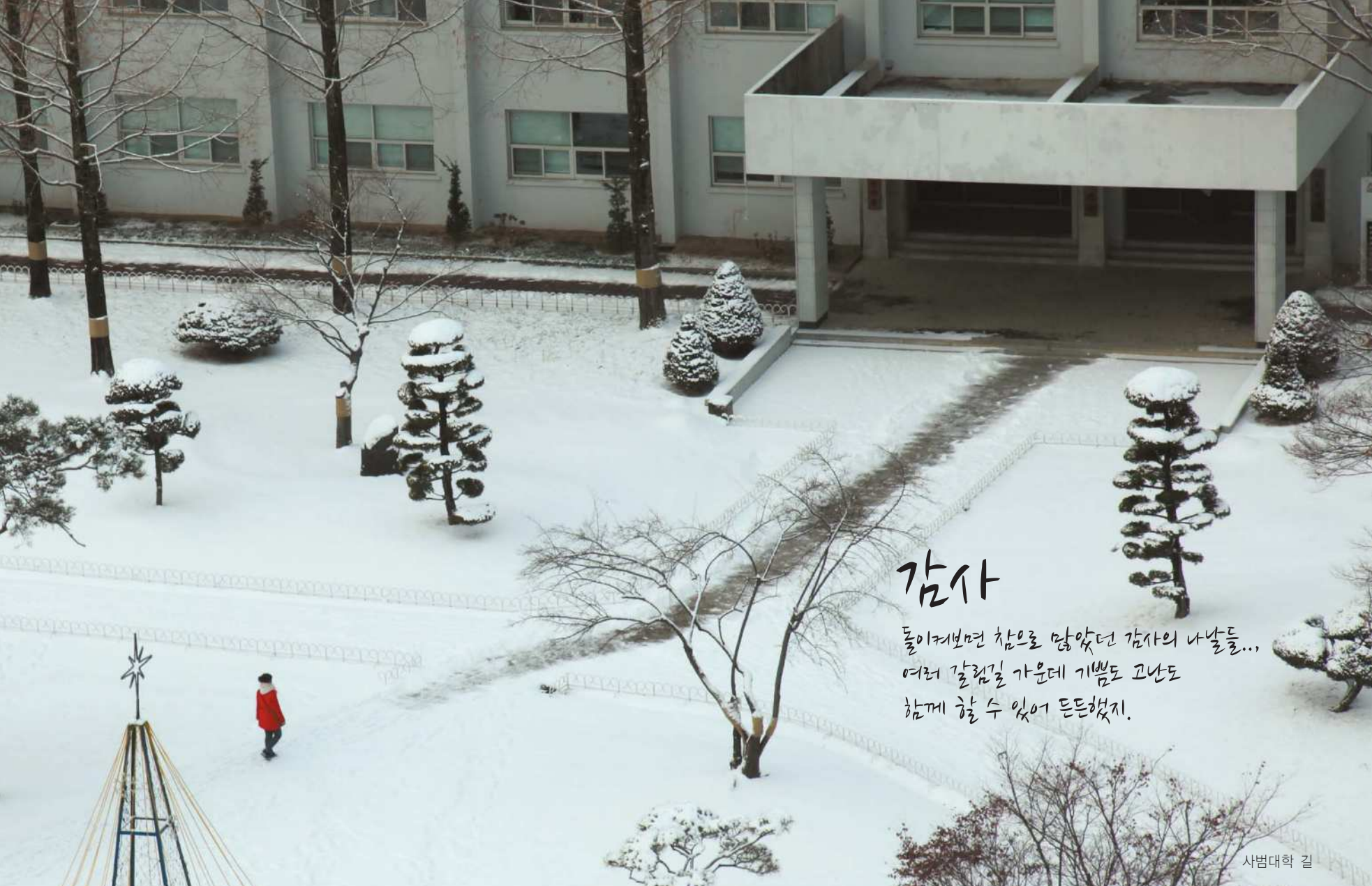
동반

함께 하는 산책, 바스락 낙엽 쌓이는 소리,
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따뜻한 추억이 되어
벤치에 머물고 있겠지.

문과대학 오솔길

2012 11 미틈달

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



감사

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았던 감사의 나날들...
여러 갈림길 가운데 기쁨도 고난도
함께 할 수 있어 든든했지.

사범대학 길

선물

한 겨울 내린 눈은 또 잠시 머물다 사라지겠지.
그대가 흘린 땀방울은 봄이라는 선물로 돌아오리라.

한남인상(像) 갈림길

2013 01 해오름달
02 시샘달

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	31
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	24	25	26	27	28			



한남대학교
Hannam University



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(오정동)
www.hannam.ac.kr
www.twitter.com/HNUpr
www.facebook.com/HNUpr